

청소년기 이성교제 경험의 영향에 대한 대학생의 주관적 인식*

최지웅** · 이은설*** · 최병섭****

I 알기 쉬운 개요

청소년기 이성교제는 대학 입시 중심의 학업을 우선시 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청소년기의 이성교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이는 청소년기 연애에 대한 청소년의 시각과 교육 현장의 관점 차이를 드러낸다. 이에 따라, 청소년기 이성교제 경험을 외면하기보다 청소년의 적응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최대화하고 부정적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상담 및 교육적 개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청소년기 건강한 이성교제를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 개입 방안의 마련을 위한 기초작업으로, 청소년기에 이성교제를 경험한 초기 성인기 대학생의 과거 이성교제 경험을 회고적으로 탐색하도록 하여 수집된 결과를 수정된 합의적 질적 연구방법(CQR-M)으로 분석하여 청소년기 이성교제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의 구체적 내용을 도출하였다. 청소년기 이성교제의 긍정적 영향으로 확인된 영역은 '자기 이해 향상', '대인 관계 역량 향상', '사랑과 연애에 대한 적응성 향상', '의사소통 기술 역량 증진', '심리적 안녕감 향상'이었으며, 부정적인 영향으로 도출된 다섯 개의 영역은 '자기 감정적 소진', '대인 관계 갈등', '연애에 대한 부적응적 태도', '자기계발 요인', '무변화'로 확인되었다.

- * 본 연구는 최지웅(2022)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 김포외국어고등학교 교사,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전공/석사, jiwoong_teacher@naver.com
- *** 인천대학교 창의인재개발학과 조교수, 교신저자, eunsullee@inu.ac.kr
- **** 인천대학교 대학생활상담센터 전임상담원, grace_ly@naver.com

투 고 일 / 2022. 9. 8.
심 사 일 / 2022. 11. 24.
심사완료일 / 2022. 12. 21.

I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기 이성교제의 경험이 개인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기에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초기 성인기의 성인 남·여를 대상으로 청소년기 이성교제 경험이 미친 영향에 대해 회고적으로 응답하도록 고안된 설문을 온라인을 통해 실시하였고, 수집된 110명의 응답 자료를 수정된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CQR-M)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청소년기 이성교제의 긍정적인 영향으로 다섯 개의 영역, 16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한편, 청소년기 이성교제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다섯 개의 영역, 13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청소년기 이성교제의 긍정적인 결과로 도출된 다섯 개의 영역은 '자기 이해 향상', '대인 관계 역량 향상', '사랑과 연애에 대한 적응성 향상', '의사소통 기술 역량 증진', '심리적 안녕감 향상'이었으며, 청소년기 이성교제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도출된 다섯 개의 영역은 '자기 감정적 소진', '대인 관계 갈등', '연애에 대한 부적응적 태도', '자기계발 요인', '무변화'(부정적인 변화 없음의 내용)로 확인되었다. 도출된 결론을 토대로 청소년기 이성교제의 의미에 대한 탐색의 의의와 교육·상담적 개입 및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하였으며, 시사점, 한계점 및 후속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제언하였다.

주제어: 청소년, 이성교제, 수정된 합의적 질적 연구

I. 서 론

청소년기 이성교제는 대학 입시 중심의 대한민국 문화에서 예외적인 일로 간주되거나 학업을 우선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어 왔다(김동심, 정수인 2017). 그러나 청소년기 이성교제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 발표된 청소년 이성교제 경험 관련 연구에 따르면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42%에서 63%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이선정, 김은영, 신호식, 2006; 정유진, 2017; 조승희, 2004). 이와 함께, 청소년의 성 행동이나 성에 대한 태도 및 경험을 살펴본 국내 이성교제 실태조사도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한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성관계 경험률은 2009년에서 2019년까지 10년 새 5.1%에서 5.9%으로 증가했으며, 2019년을 기준으로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의 경우 100명 중 15명가량,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의 경우 100명 중 7명가량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서울신문, 2021.10.21). 이창식과 김윤정(2005)의 연구에서 고등학생과 대학생 47.1%가 현재의 이성친구와 성관계를 하거나 추후 할 의향이 있다고도 했다. 이렇듯, 청소년기의 연애가 증가하고 있지만 학교 현장 혹은 사회에서는 청소년기의 이성교제를 학업에의 전념과 대학교 진학을 위해 보류되어야 하는 것으로 취급하거나 문제시하는 경향이 흔히 존재한다.

학업을 강조하는 국내 문화적 특성상 청소년기의 연애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주를 이루지만 정서 발달 차원에서 청소년기의 연애 경험은 성인기의 친밀한 관계를 준비하는 과정이 되기도 하는 한편 청년기 교우 집단 속에서 지위를 높여주고 자아존중감을 길러주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Roscoe, Diana, & Brooks, 1987; 고정자, 박은령, 2001). 청소년기 또래 관계의 특징 중 하나는 아동기에 비해 또래 이성과의 접촉의 빈도가 증가한다는 점인데(한상철, 2000), 13세를 경계로 신체적 성장과 더불어 심리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서 이성에 대한 관심과 동경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며(곽금주, 2013), 이성에게 잘 보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성교제에 대한 의욕이 생기거나 이성에게 매력적인 존재가 되려 하면서 외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된다(김원중, 1998). 나아가, 이성친구가 없는 것 자체에 대해 문제라고 생각하는 10대 청소년들이 있고 이성교제 여부가 자신의 신체적 매력 등과 연결되어 개인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장미수, 이지연, 이지연, 2013). 한편, 부산 청소년 인권네트워크는 교내 연애가 적발되면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를 인권 침해 사례 등을 포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바가 있는데(매일경제, 2021), 이러한 사례를 포함하여 증가하는 청소년기 이성교제 비율은 청소년기 연애에 대한 청소년의 시각과 교육 현장의 관점 차이를 드러내며 청소년기의 건강하고 긍정적인 이성교제를 촉진하기 위한 학문적 노력과 이에 기반한 교육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청소년기 이성교제에 대한 이해는 발달이론에 기초한다. Erikson(1968)의 심리 사회적 발달 단계에 따르면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 대 역할 혼미 단계’에 해당하는데, 이 시기에 사랑에 빠지는 것은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시도 중 하나로 이해할 수 있고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서로의 감정과 사고를 공유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듯, 청소년기에 자아정체감을 성공적으로 형성하고 정서적 독립을 이루는 것은 향후 건강한 삶을 위한 주요 발달 과업이 되며 Erikson(1968)이 제시한 성인 초기의 발달 과업인 친밀감의 획득에도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기 건강한 이성교제가 개인의 적응과 발달에 미치는 중요성은 여러 학자들이 강조한 바 있는데(Bouchey & Furman, 2003; Collins, Welsh, Furman, 2009; Manning, Longmore, Copp & Giordano, 2014), 특히 Bouchey와 Furman(2003)은 ‘청소년기의 데이트와 낭만적 경험’이란 연구에서 부모와 친구, 모두 청소년의 대인 관계 형성 및 상호작용 패턴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성교제 경험은 부모나 친구와 형성한 관계에서 나타나지 않는 성적 행동, 불륜, 이별 등의 경험을 포함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이성교제 상황에서 관계의 기술을 습득하기도 하고 견해를 형성하여 미래의 상황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행동하게 된다고 보고했다. 또한 청소년기에 이성교제를 통한 친밀감 형성은 성 가치관(sexuality)이 확립되기도 전에 성 경험을 낳을 가능성이 높는데(조승희, 2006), 이러한 성경험 또한 부정적인 태도로만 볼 것이 아니라 청소년기를 개념화 하는데 중요한 차원 중 하나로 보아야 한다(박연미, 2006).

청소년기 이성교제의 사회 맥락 및 개인 발달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내에서는 청소년의 이성교제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이 진행된 바 있는데, 이 중 다수의 연구가 청소년 성 행동, 성에 대한 태도, 이성교제의 실태조사 혹은 앞서 논의한 발달적 관점에 바탕으로 두어 이성교제 및 관련 변인 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기 이성교제가 학교 적응이나 자아정체감 등과 같은 개인적 변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상충되는 결과들이 나타난다. 일례로, 김원중(2004)의 연구에서 고등학생의 이성교제는 대체로 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으나 학업성취와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 오정화(2015)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이성교제는 청소년의 정신건강 관련 변인에는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학교 적응은 돕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왕경아(2016)는 청소년 이성교제 경험 유무에 따라 학교 적응 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학교 적응 수준이 높게 나타남을 보고했다. 반면, 김동심과 정수인(2017)은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자아정체감과 자아 탄력성이 유의하게 낮았다고 보고했다. 이렇듯, 일관되지 않은 결과는 청소년의 이성교제가 개인의 자아정체감, 적응, 정신건강 등의 개인 내적 변인에 주는 긍정 혹은 부정적 영향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탐색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한편, 청소년기 이성교제는 또래, 가족 및 교사와의 관계와 같은 대인 관계적 요인보다 밀접한 관련을 보인다. 청소년기의 이성교제가 터부 시 되는 국내 사회문화적 분위기와 관련하여 청소년기 이성교제로 인해 가족 관계나 교사와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남이 확인되는(안월분, 이재구, 김영희, 2002) 한편, 이성교제에 대한 태도가 개방적일수록 부모·또래·교사와의 관계가 각각 좋아진다는 결과도 보고된다(이명신, 2009). 보다 구체적으로, 이지은(2014)이 620명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는 부모 애착이 높을수록 이성교제 만족도가 높았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이성교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채진선(2007)은 중·고등학교 37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성 친구 애착 안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변인이 부모에 대한 애착임을 확인했다. 또한, 조현열(2012)은 이성교제 경험이 없는 학생에 비해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학생이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 정도가 낮다고 보고했다. 한편, 백옥현(2011)은 청소년기의 자녀들이 부모에 비해 이성교제에 대한 순기능적 시각 경향을 나타내며 부모의 이성교제에 태도 또한 지지적이거나 자율 지향적이기를 원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상 논의한 연구들과 더불어, 소수의 질적 연구가 청소년기 이성교제의 의미와 영향에 대한 심층적인 탐색을 시도한 바 있다. 이영선 등 (2013)은 이성교제를 경험한 남녀 고등학생 9명을 대상으로 개별면접 인터뷰를 실시하여 청소년이 생각하는 이성친구의 개념, 사랑의 의미, 이성교제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인식을 탐색하여 청소년이 당면한 이성교제에 대해 경험하는 문제 및 대처 전략을 확인하였다. 또한, 8명의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은주(2014)는 근거 이론을 바탕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어머니들은 이성교제를 학업과 대학입시의 장애물로 인식하며 이성교제를 할 경우 이에 대한 개입으로 이성교제에 대한 금지의 메시지나 순결 이데올로기를 지속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학생들은 이러한 어머니의 강한 개입에 맞서 또래집단과의 지속적 관계 속에서 저항 논리를 형성하고 소극적 수용을 통해 어머니와의 극단적 대면을 기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청소년의 이성교제에 대한 태도나 이성교제 경험이 개인의 발달 및 적응 관련 변인에 미치는 영향은 다각적으로 나타난다. 지금까지 수행된 청소년기의 이성교제에 대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는 청소년 대상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발달과 이성교제에 대한 다각적인 통찰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 역시 이러한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청소년기의 이성교제 경험의 의미에 대해 탐구해 보고자 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주로 양적 연구에 치중되어 있어 청소년 이성교제의 결과에 긍정 혹은 부정적 결과를 일으키는 기제를 탐색하는 데 있어 연구자가 선정한 개별 변인과 측정 도구의 제약에 영향을 받는다. 질적 연구의 경우 청소년기 이성교제의 구체적 의미를 확인할 수 있으나 매우 소수이며 연구 제한된 표집에 바탕을 두고 있다. 또한, 청소년 이성교

제에 대해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가 드물어 최근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청소년의 이성교제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청소년의 이성교제는 개인의 성장과 적응, 발달적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따라서 증가하는 청소년 이성교제에 대처하여 적절한 교육적·상담적 개입을 통해 청소년이 보다 건강하게 관계형성과 유지, 이별 과정에서의 대처기술과 정서적 유연성을 함양할 수 있게 돕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이성교제가 수반하는 학업 소홀, 성적 측면에의 몰두 및 비행, 가족 관계의 악화 및 부모와의 갈등(박용호, 2005; 백옥현, 2011; 안월분 등, 2003)과 같은 부정적 결과들 대한 논의는 청소년 이성교제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적 개입의 필요성을 지지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청소년들은 이성교제를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으로 간주하며 부모나 사회·교육 현장의 인식에 비해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박진만, 2005; 백옥현, 2011), 실제 이성교제의 경험이 있으며 성적 성숙에 대한 이해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이성교제관을 갖는 경향을 보인다(박혜순, 2007).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보다 적절하고 정확한 개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청소년기 이성교제 경험의 개념적 특징들을 탐색하고 이를 구성개념으로 추출하는 과정은 학문적·실용적 의의를 갖는다.

이에, 본 연구는 초기 성인기에 있는 청소년기에 이성교제를 경험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과거 이성교제 경험을 회고적으로 탐색하게 함으로써 이성교제의 의미와 영향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고자 하였다. 물론 청소년기 이성교제의 경험과 특징 및 이에 따른 변화과정과 인과관계를 포착하기 위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동시대 집단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통합적인 접근법일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현재 이루어지는 행동이나 현상에 대해 잘 인식할 수는 있으나 당면 현상이나 행동이 지나갔을 때 그것에 대해 적절히 반추 및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고 정보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Webster & Mertova, 2007). 국내 및 해외에서 수행된 다수의 연구들이 회고를 통해 청소년기의 경험에 대한 이해를 탐색한 바 있는데, 예를 들어, Williams와 Portman(2014)은 중고등학교 시기에 경험한 학업적 탄력성의 의미와 영향을 주었던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대학생의 회고자료를 사용하였고 황매향, 강지현, 하혜숙, 김영빈(2021)은 중학교 시기의 일상적 경험의 특성과 어려움을 규명하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중학생 시기를 회고하게 함으로써 적절한 거리를 두고 성찰적 사고를 활성화하여 보다 정확한 평가를 하고자 시도하기도 했다. 실제 회고 자료 분석 방법은 기억 회상의 오차가 존재하더라도 자료 수집의 까다로움을 고려할 때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실제 분석 결과를 살펴볼 때 증대한 오차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된다(노연경, 홍세희, 2010).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의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성인 초기 참여자를 대상으로 수정된 합의적 질적 연구법(CQR-M)을 적용하여 청소년기에 경험한 이성교제의

내용과 그 결과를 탐색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기 이성교제에 대한 교육 및 상담적 개입에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기에 이성교제를 경험한 초기 성인기의 연구 참여자들이 인식하는 과거 이성교제 경험의 긍정적 영향은 무엇인가? 둘째, 청소년기에 이성교제를 경험한 초기 성인기의 연구 참여자들이 인식하는 과거 이성교제 경험의 부정적 영향은 무엇인가?

II. 방 법

1. 연구 대상 및 참여 절차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청소년기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성인으로, 눈덩이 표집 및 온라인 대학생 커뮤니티를 통한 홍보를 통해 연구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본 연구의 참여 대상, 목적, 연구 참여 및 수행 방법, 부작용 또는 위험 요소, 연구 참여에 따른 이익과 보상, 개인 정보와 비밀 보장 등에 관한 내용을 읽고 동의한 후 온라인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참여자들에게는 보상으로 3천 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지급 하였다. 온라인 설문은 2022년 1월 28일부터 2022년 2월 14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연구참여자들은 약 15분 정도가 설문 시간으로 소요됨을 안내받고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참여자 110명의 성별은 남성 32명(29.1%), 여성 78명(70.9%)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연령은 만 22.68세(SD = 2.49), 최소값은 만 20세, 최대값은 만 28세였다. 참여자들은 대학생 86명(78.3%), 대학원생 13명(11.8%), 휴학 및 기타로 응답한 11명(9.9%)이었다. 참여자들의 전공은 어문학 6명(5.5%), 인문과학 6명(5.5%), 사회과학 20명(18.2%), 상경계열 23명(20.9%), 사범교육 8명(7.2%), 예체능 6명(5.5%), 생활 과학 1명(0.9%), 자연과학 13명(11.8%), 공학 20명(18.2%), 법학 2명(1.8%), 의학/간호계열 5명(4.5%)이었다. 청소년 이성교제 경험의 시기의 경우 청소년 전기(9세-14세)는 3명(2.7%), 청소년 중기(15세-18세)는 71명(64.5%), 청소년 후기(19세)는 29명(26.4%), 기타는 7명(6.4%)이었다.

2. 연구절차

본 연구는 수정된 합의적 질적 연구(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Modified; CQR-M)방법의 절차에 따라 수행되었다. CQR-M은 CQR에서 파생된 질적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50명에서 150명에 해당하는 표본으로부터 얻은 질적 설문 자료를 분석하는 데 사용된다(Spangler, Liu, & Hill, 2012). CQR-M은 설문지와 같이 비교적 큰 표본에서 얻은 다른 질적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팀의 합의 과정을 거쳐 영역별 범주화 및 코딩 작업을 통하여 일반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 또한, CQR-M은 반응의 빈도 및 비율을 고려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CQR-M을 선택한 이유는 이 연구방법이 설문조사에 비해 개인의 사고나 감정을 깊이 탐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연구자의 주관적인 해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분석팀의 합의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이다(Hill et al., 2005). 또한, 청소년기 이성교제 경험을 한 성인의 표집 층이 넓고, 이들에 관한 질적 연구가 많지 않다는 것을 고려해 소수의 개별 인터뷰보다 다수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지 방법이 적절하다(김단비, 주은선, 2020; 남순임, 김윤희, 2019)고 판단해 CQR-M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다수의 자료에 기반하여 좀 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경험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CQR-M의 절차는 자료수집, 합의팀 구성, 영역과 범주 구성, 코딩, 빈도 분석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자료수집을 위해 문헌 분석을 통한 질문지 초안을 작성하였고 상담심리 전공 박사이자 현직 교수 2명과 상담심리 전공 박사 1명, 총 3명에게 자문을 통해 4개의 자유기술형문항이 최종 완성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청소년 시기를 회상하며 4개의 자유기술형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온라인 설문지의 문항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온라인 설문지 문항

인적 사항 및 기본 정보	성별, 연령, 학년, 전공계열, 청소년기 이성교제 경험 횟수, 연령 등
청소년기 이성교제에 대한 경험	과거 청소년기에 경험한 이성교제는 스스로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나요?
	과거 청소년기에 경험한 이성교제가 현재 대인 관계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세요.
	과거 청소년기에 경험한 이성교제는 스스로에게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나요?
	과거 청소년기에 경험한 이성교제가 현재 대인 관계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세요.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을 위해 연구진 3명과 상담심리학 석사과정 학생 1인, 총 4명의 분석팀을 구성하였다. 분석팀은 자료 분석 전에 CQR 관련 문헌을 읽고 내용을 숙지하였다. 이후, 한 사례의 일부를 함께 실제로 분석하는 모의 분석 과정으로써 CQR에서 제안하는 훈련 절차를 거쳤다(Hill et al., 2005). 본 연구진 중 1명은 CQR을 포함한 여러 질적 연구

방법론으로 다수의 논문을 쓴 상담심리 전공의 박사이자 현직 교수이다. 또 다른 1명의 연구진은 상담심리 전공의 박사 과정 학생이며, 그 외 1명은 상담심리 전공의 석사 졸업생이다. 이 2명은 CQR-M 연구 방법을 이용하여 질적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을 훈련받은 경험이 있다. 상담심리 석사 과정 학생은 CQR-M이 활용된 여러 논문들을 읽고 연구자 3인과 함께 CQR-M 연구에 관해 논의하며 자료를 분석했다. 분석팀은 총 110부의 수집된 온라인 설문지의 범위를 설정하여 읽고 논의에 들어갔다.

자료 분석에 선행하여, 4명으로 구성된 분석팀은 본 연구 주제에 대해 각자가 지닌 기대와 편견에 관해 이야기했다. 이어, 기대와 편견에 관한 선행 논의가 분석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분석팀에서 논의된 기대와 편견은 청소년기 이성교제 경험의 긍정적인 영향으로 ‘대인 관계 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에 기여할 것 같다’, ‘연애에 관한 기술과 방법을 습득할 수 있을 것 같다’ 등이 대표적이었다. 반면, 청소년기 이성교제 경험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학업에 지장을 초래했을 것이다’, ‘관계에서의 상처로 인해 성인기 연애에 대한 잘못된 관념이 습득될 수 있을 것 같다’, ‘결과적으로 청소년기 이성교제는 득보다 실이 많을 것 같다’ 등의 논의가 있었다. 이러한 기대와 편견들이 자료 분석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 분석팀은 설문지 응답을 꼼꼼히 읽으며 참여자들의 응답을 면밀히 파악하고자 노력하였고 4인의 합의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게 되었다. 합의 과정에서 이견으로 ‘타인에 관한 이해심 증진’ 범주와 ‘타인에 대한 배려심 및 공감 능력 향상’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채택되었다. ‘다채로운 감정의 이해’에 관한 범주는 데이터의 수가 현저하게 적어 ‘자기 이해 향상’ 영역으로 재배치 논의가 되어 채택되었다. ‘사랑과 연애에 대한 적응성 향상’ 영역에서 가치관, 태도, 방법, 기술 등이 범주별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가치관과 태도’를 통합하고 ‘방법과 기술’을 통합하여 조정하였다.

이처럼 연구자들의 이견은 참여자의 응답을 반복적으로 읽고 데이터를 총 5차례 분석하며 영역을 재설정하거나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읽고 모호한 데이터에 관한 설정과 범주 명의 명명에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온라인 화상 회의 및 실시간 SNS 메신저를 통해 소통하였다. CQR과 달리 CQR-M은 자료가 상대적으로 간략하고 맥락에서 자유로운 편이라 감수가 필수적이지 않으나(Spangler, Liu, & Hill, 2012), 본 연구에서는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료 분석 결과를 CQR-M을 이용한 다수의 연구를 진행한 상담심리 전공 교수 1인에게 요청하여 감수받았다. 감수 결과 연구진이 분류한 영역 및 범주에 큰 수정사항은 없었다.

Ⅲ. 결 과

1. 청소년기 이성교제의 긍정적인 영향

참여자들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 시기 이성 교제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에 관한 영역으로 ‘자기 이해 향상’, ‘대인 관계 역량 향상’, ‘사랑과 연애에 대한 적응성 향상’, ‘의사소통 기술 역량 증진’, ‘심리적 안녕감 향상’이 도출되었다. 표 2를 통해 영역별 범주, 빈도, 비율을 제시하였고 각 영역 별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표 2
청소년기 이성교제의 긍정적 영향

영역	범주	빈도	(%)
자기 이해 향상	1) 자아성찰 및 정체성 발달의 계기	43	8.40%
	2) 심리적 지지 경험을 통한 자존감 증진 및 자아 성숙	41	8.01%
대인 관계 역량 향상	3) 또래관계의 확장 및 동성친구에 대한 이해 증진	67	13.09%
	4) 타인에 대한 이해 확장 및 대인 관계 효능감 증진	56	10.94%
	5) 다른 성별에 대한 이해 및 관계 확장	49	9.57%
	6) 부모에 대한 이해 확장 및 관계 변화	27	5.27%
사랑과 연애에 대한 적응성 향상	7) 적응적 연애 태도 확립 및 방법 습득	52	10.16%
	8) 미래의 연애에 관한 긍정적 참조 체제 형성	30	5.86%
의사소통 기술 및 역량 증진	9) 의사 표현 기술 향상	49	9.57%
	10) 대인 관계 갈등 및 문제 해결력 향상	22	4.30%
	11) 감정 조절 및 감정 표현 기술 향상	17	3.32%
	12) 경청 및 공감 능력의 향상	17	3.32%
심리적 안녕감 향상	13) 다양한 경험(예: 여가, 취미)의 기회	21	4.10%
	14) 삶의 원동력과 동기 부여	11	2.15%
	15) 학업 스트레스 완화	5	0.98%
	16) 외적 자기 계발	5	0.98%

1) 자기 이해 향상

첫 번째 영역은 ‘자기 이해 영역’으로 1) 자아성찰 및 정체성 발달의 계기, 2) 심리적 지지 경험을 통한 자존감 증진 및 자아 성숙이라는 2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먼저, ‘자아성찰

및 정체성 발달의 계기'는 청소년 이성교제를 통해 자기 이해와 성장에 계기가 되었다는 범주로, '내가 살아온 세상 기준만이 아닌 새로운 관점에서의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내가 타인을 대하는 태도 등 나 자신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다', '이성을 대하는 태도에서 본인이 몰랐던 스스로의 행동 방식, 사고방식 등에 대해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함', '정체성이 흔들리는 시기에 대인 관계, 자기이해, 타인 이해 등 나와 타인의 내면을 더 깊이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활동, 취미, 취향 등을) 확고히 알 수 있도록 해주었다', '나의 감정에 대해서 생생하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나의 취미, 안목 등 가치관도 더욱 굳건해지게 되었다' 등이 언급되었다. 둘째, '심리적 지지 경험을 통한 자존감 증진 및 자아 성숙'은 청소년기 이성교제를 통해 심리적으로 지지 받고 안정감을 느끼며 자존감 향상과 자아 성숙에 영향을 주었다는 범주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청소년기 때 안정감을 주었고, 외로움도 해결해 주었다',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 타인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청소년기 이성교제로 자존감과 자신감이 많이 올라갔다. 덕분에 타인과의 관계에서 여유로움을 갖게 되었고, 그로 인해 각박한 세상 속에서 타인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온전히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존재하는 존재감에 대한 안정감과 안정적 심리'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2) 대인 관계 역량 향상

두 번째 영역은 '대인 관계 역량 향상'으로 1) 또래관계의 확장 및 동성친구에 대한 이해 증진, 2) 타인에 대한 이해 확장 및 대인 관계 효능감 증진 3) 다른 성별에 대한 이해 및 관계 확장, 4) 부모에 대한 이해 확장 및 관계 변화로 4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먼저, '또래관계의 확장 및 동성친구에 대한 이해 증진'은 청소년기 이성교제를 통해 또래 관계가 확장되고 동성친구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었다는 범주로, '사회성도 길렀다', '동성 간에는 교제 시 있었던 다양한 일들에 대해 공감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연애하는 친구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야기를 많이 하고 우정을 쌓을 수 있었다' 등이 언급되었다. 다음으로, '타인에 대한 이해 확장 및 대인 관계 효능감 증진'은 청소년기 이성교제를 통해 타인에 대한 이해가 확장된 영향을 받았다는 범주로, '나와 다른 유형의 사람들을 접해본 일이 많아져서, 새롭게 만난 상대방이 나와 성격적으로 많이 다른 사람이라고 해도 이해부터 시도하는 습관이 생겼다', '나와 완전히 다른 사람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며 인내심과 이해심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도 개개인의 특성을 포용하려는 노력을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등이 언급되었다.

세 번째로, '다른 성별에 대한 이해 및 관계 확장'은 청소년기 이성교제를 통해 다른 성별에 대한 이해가 확장되었다는 범주로, '또래 이성을 대하는 전반적(사회 문화적 대인 교류) 태도 및 방법을 습득하는 데 도움을 줌, 또래 이성과의 상호 소통으로 젠더 갈등 이슈에 좀 더 폭넓은 시야를 가지게 됨', '다른 이성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성과 동성의 다른 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등이 언급되었다. 넷째로, '부모에 대한 이해 확장 및 관계 변화'는 청소년기에 이성교제를 경험하면서 부모와의 대화가 늘어나고 부모님의 관점을 이해하는 폭이 확장되고 관계도 변화되었다는 범주로, '부모님과 대화할 애깃거리가 하나 더 생겨서 이성친구의 얘기도 많이 꺼내고 조언도 들으면서 부모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부모님에게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고 깊은 소통을 하는 횟수가 늘어났다', '이성교제 문제로 부모님과 갈등을 겪으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정신적 독립의 시작이 되기도 하는 것 같음' 등이 언급되었다.

3) 사랑과 연애에 대한 적응성 향상

세 번째 영역은 '사랑과 연애에 대한 적응성 향상'으로 1) 적응적 연애 태도 확립 및 방법 습득, 2) 미래의 연애에 관한 긍정적 참조 체제 형성이라는 두 개의 범주가 확인되었다. 첫째, '적응적 연애 태도 확립 및 방법 습득'은 청소년기 이성교제를 통해 적응적인 연애에 대한 태도 및 관점을 습득하고 연애 관계를 적응적으로 유지하는 방법 혹은 기술을 배울 수 있었다는 범주이다. '사랑에 대한 가치관 형성', '상대방이 아프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부분을 걱정해 주고 공감해 주며 상대방의 호감을 사는 방법을 알게 됐다', '상대방에게 호감을 얻을 수 있도록 행동하거나 말하는 법을 알게 되었다' 등의 내용이 있었다. 둘째, '미래의 연애에 관한 긍정적 참조 체제 형성'은 청소년기 이성교제를 통해 미래의 연애에 관한 긍정적인 참조 체제를 형성했다는 범주로, '성인이 되고서 연애를 할 때에 청소년기의 이성교제를 바탕으로 더 보완된 교제를 할 수 있음', '새로운 이성을 만날 때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이성에게 내가 마음이 갔던 점, 안 좋았던 점을 고려할 수 있게 되었다' 등이 언급되었다.

4) 의사소통 기술 및 역량 증진

네 번째 영역은 '의사소통 기술 향상'으로 1) 의사 표현 기술 향상, 2) 대인 관계 갈등 및 문제 해결력 향상, 3) 감정 조절 및 감정 표현 기술 향상, 4) 경청 및 공감 능력의 향상이라는 4개의 범주가 포함되었다. 먼저, '의사 표현 기술 향상'은 청소년기 이성교제를 통해 대화의 기술이 향상되었다는 범주로, '의사 표현 능력이 강화되었다', '내가 원하는 부분을 비교적

명확히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나의 의견을 제시하는 법을 학습했다. 나와 반대되는 의견을 수용하면서 나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방법을 배웠다’,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요구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배려를 핑계로 애매하게 구는 사람보다는 분명한 표현으로 관계를 명쾌하게 이어가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등이 언급되었다. 둘째, ‘대인 관계 갈등 및 문제 해결력 향상’은 청소년기 이성교제 경험으로 인해 대인 관계에서의 갈등과 문제 해결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는 범주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이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의 의견을 조절하면서 더 나은 결론에 도달하는 방법에 대해 알게 되었다. 이성 간의 갈등에서 어떤 부분이 서로 이해가 다른지 알게 되면서 갈등에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등의 내용이 확인되었다.

셋째, ‘감정 조절 및 감정 표현 기술 향상’은 청소년기 이성교제를 통해 감정을 조절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기술이 향상되었다는 범주로, ‘감정을 조절하는 법, 감정을 타이를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 ‘타인에게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감정 기복이 적어졌다. 청소년기 이성교제로 하루에도 수 백 번의 감정 기복을 경험하고 나니 어떤 일에도 감정이 크게 동요되지 않는다’, ‘스스로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연습을 했고, 조금 더 능숙해질 수 있었다’ 등이 확인되었다. 넷째, ‘경청 및 공감 능력의 향상’은 청소년기 이성교제 경험을 통해 경청 및 공감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범주로, ‘공감 능력이 부족했는데 여자친구를 만나면서 상대방에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됨’, ‘애정을 가진 사람과 대화하면서 그 사람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경험을 토대로 현재까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려고 노력한다. 공감이 상대에게 얼마나 큰 애정과 신뢰로 느껴지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등이 확인되었다.

5) 심리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향상

다섯 번째 영역은 ‘심리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향상’으로 1) 다양한 경험(예: 여가, 취미)의 기회, 2) 삶의 원동력과 동기 부여, 3) 학업 스트레스 완화, 4) 외적 자기 계발로 4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첫째, ‘다양한 경험(예: 여가, 취미)의 기회’는 청소년기 이성교제를 통해 여가, 취미 생활 등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범주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음. 이성교제를 통해 친구와는 가지 않는 장소에 가본다는 등의 다양한 경험을 해봤기에 동성 친구들에게 추천할 만한 장소를 많이 알게 되었다’, ‘같이 새로운 여가 생활을 하고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애니를 좋아해 같이 보던 것이 나의 취미가 되었고 같이 새로운 장소를 가고 처음 가보는 음식점들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등이 언급되었다. 둘째, ‘삶의 원동력과 동기 부여’는 이성교제 경험이 삶에 활기를 더하고 여러

측면에서 동기를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범주로,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끔 여자친구가 도와주어서 바른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나중에도 잘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목표를 찾고 대학에 갈 생각을 하였고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멋져 보이고 싶다는 이유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청소년기에 사귀었던 친구에게 받았던 자극으로 현재 좋은 대학을 다닐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등이 언급되었다.

셋째, ‘학업 스트레스 완화’는 청소년기 이성교제가 학업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범주로, ‘학업적 스트레스 등 같은 계열을 고민하는 친구에게는 이야기할 수 없는 고민을 남자 친구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 심리적 안정을 느낄 수 있었다’, ‘학업 스트레스를 함께 이겨내어 정서적 안정이 되었음’ 등이 확인되었다. 넷째, ‘외적 자기 계발’은 청소년기에 경험한 이성교제가 외모, 건강관리 등 외적 자기 계발에 긍정적 영향을 초래했음을 의미하는 범주로, ‘생활습관 개선 및 자기관리 능력의 상승’, ‘이성이 선호하는 옷 스타일을 알아가는 등 외적인 부분을 발전시킴’, ‘다이어트, 운동 및 건강한 식습관, 피부관리 등에 신경 쓰게 됨’ 등이 포함되었다.

2. 청소년기 이성교제의 부정적인 영향

참여자들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 시기 이성 교제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에 관한 영역으로 ‘자기 감정적 소진’, ‘대인 관계 갈등’, ‘연애에 대한 부적응적 태도’, ‘자기계발 저하’, ‘무변화’가 도출되었다. 긍정적인 데이터의 수가 512개, 부정적인 데이터 325개로 긍정과 부정 데이터에 차이가 있었다. 부정적인 데이터 325개 중 14명의 답변은 청소년기의 이성교제가 초래한 아무런 부정적 변화가 없었다고 응답한 내용을 포함한다. 표 3을 통해 영역별 범주, 빈도, 비율을 제시하였고 각 영역 별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표 3
청소년기 이성교제의 부정적 영향

영역	범주	빈도	(%)
자기 감정적 소진	1) 성격의 부정적 변화	42	13.50%
	2) 자신감 하락 및 자존감 저하	19	6.11%
	3) 불안정한 정서 및 감정적 동요 경험	17	5.47%
대인 관계 갈등	4) 부모와의 갈등	48	15.43%
	5) 동성 친구와의 관계 갈등 및 소원	45	14.47%
	6) 이성 친구와의 관계 갈등 및 소원	15	4.82%
	7) 부정적 평판에 대한 두려움	14	4.50%

영역	범주	빈도	(%)
연애에 대한 부적응적 태도	8) 이성에 대한 편견 및 고정관념 형성	31	9.97%
	9) 사랑에 관한 부정적 개념 습득	22	7.07%
자기계발 저하	10) 학업 소홀 및 성취의 어려움	26	8.36%
	11) 다양한 활동 경험 및 여가 생활 제한	11	3.54%
	12) 금전과 시간 등 자원의 소모	7	2.25%
무변화	13) 부정적인 변화 없음	14	4.50%

1) 자기 감정적 소진

첫 번째 영역은 ‘자기 감정적 소진’ 영역으로 1) 성격의 부정적 변화, 2) 자신감 하락 및 자존감 저하, 3) 불안정한 정서 및 감정적 동요 경험이라는 3개의 범주가 확인되었다. 먼저, ‘성격의 부정적 변화’는 청소년기의 이성교제 경험이 성격이 부정적 변화를 초래했다는 범주로, ‘서로를 우선순위로 하는 관계이기에, 편협한 시각을 교정할 기회가 적어지고, 오히려 작은 시각 안에 갇히게 되는 경향이 있었음. 오랫동안 해당 친구와만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 친구를 사귄 필요성을 못 느껴, 새 친구를 사귀어야 하는 상황에 큰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듯’, ‘이성친구에게 점점 의존하고 집착하는 심리가 강화되었다’, ‘성격이 소심해 지고 낮을 가리게 되어 이성관계에 있어 적극적이지 못하게 되었고, 동성 관계에 있어 낮을 가리게 되었으며, 전반적으로 타인 관계에 있어 소심한 성격을 갖게 되었다’ 등이 언급되었다.

둘째, ‘자신감 하락 및 자존감 저하’는 청소년기 이성교제 경험으로 자신감이 하락하거나 자존감이 저하되었다는 범주로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다. 이성친구가 조금만 연락이 안 되어도 나 때문인 것 같았고, 조금만 피곤한 기색을 보여도 눈치 보기 바빴다. 외모에 집착하게 되었다’, ‘한 친구는 내가 그 친구보다 부족한 부분을 부각되게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래서 더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생겨서 자존감이 낮아진 적도 있고 일부러 상대방의 자존감을 깎아먹으려고 상대방에게 비난을 한 적도 많다. 청소년기 이성교제 경험에서 상처받았던 일들은 나의 자신감을 떨어트릴 때가 종종 있다. 어렸을 때라 더욱 예민하고 민감했기 때문에 조그만 말에도 쉽게 상처를 받기 때문이다’ 등이 언급되었다.

셋째, ‘불안정한 정서 및 감정적 동요 경험’은 청소년기 이성교제 경험으로 불안정한 정서와 감정적 동요를 경험하였다는 범주로 ‘감정 소모가 가장 심했던 것 같다. 별것 아닌 일에도 슬퍼하고, 기뻐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사이가 안 좋아지고 싸우게 되면 나의 감정을 허비하며 싸우는 등 시간 낭비와 감정 소모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 같다’, ‘감정적인 스트레스와 처음 경험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음’, ‘미성숙한 연애가 그 관계의 지속이 다할 때쯤부터

굉장한 심리적 불안과 감정적 폭발을 만들어내어 수많은 인간관계를 놓아버리게끔 만들었다’, ‘헤어지거나 싸울 때 서로에게 감정 소모를 하고 불안감을 갖게 됨’ 등이 확인되었다.

2) 대인 관계 갈등

두 번째 영역은 ‘대인 관계 갈등’으로 1) 부모와의 갈등, 2) 동성 친구와의 관계 갈등 및 소원, 3) 이성 친구와의 관계 갈등 및 소원, 4) 부정적 평판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4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첫째, ‘부모와의 갈등’ 범주는 청소년기의 이성교제로 인해 부모와의 갈등을 겪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이성교제를 하지 말라고 한 부모님의 뜻에 위배되는 이성교제 행태에 부모님에게 신뢰를 조금 잃은 것 같음. 말 잘 듣는 자녀에서, 꼭 말을 잘 듣지만은 않는 자녀로’, ‘부모님의 반대가 있으셔서 해당 부분에서 여러 번 다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연애를 위해 쏟는 돈과 시간이 많은데 부모님에게 이를 숨길 때가 있어 솔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과의 신뢰관계는 깨진 듯 보였다. 늦게 다니는 나에게 통금까지 정해주신 엄한 분들이셨는데 계속해서 통금도 무시하고 11시를 넘겨 들어가는 일이 많았다. 나를 믿지 못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다니는 게 아니냐는 불신과 나를 믿지 못하면서 형제에게 나에 대해 고민을 이야기하고 이상하게 여기는 부모님의 불신이 관계에 금이 가게 했다’ 등이 확인되었다.

둘째, ‘동성 친구와의 관계 갈등 및 소원’은 청소년기 이성교제 경험으로 동성 친구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거나 소원해졌다는 범주로, ‘친했던 친구들에게 소홀해지며 잠시나마 조금 멀어졌었다.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나의 관심을 집중하면서 다른 소중한 사람들에게 무성의, 무관심하게 대했다’, ‘또래 친구들에게 쓰는 시간과 에너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남자친구에게만 신경을 쓴다고 하며 서운해하는 동성 친구들이 생겼다’는 응답이 포함되었다. 셋째, ‘이성 친구와의 관계 갈등 및 소원’은 청소년기 이성교제 경험으로 이성 친구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거나 소원해졌다는 범주로, ‘이성친구와의 교제로 다른 이성인 친구들과 못 만나면서 관계가 깨짐’, ‘친구들보다 남자친구랑 보내는 시간이 많아짐. 이성인 친구들이 감소함’, ‘현재 좁은 대인 관계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함. 이성과의 관계를 형성하기를 꺼려하며, 동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의심이 많아지는 성향이 생김 현재 대인 관계를 형성할 때, 좁은 대인 관계를 형성하려는 경향이 생겼음’ 등이 확인되었다.

넷째, ‘부정적 평판에 대한 두려움’은 청소년기 이성교제 경험으로 부정적 평판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다는 범주로, ‘그 당시 한 학년 선배와 헤어지고 주위 선배들의 수군거림 등이 그 당시에는 굉장한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교내를 돌아다닐 때 헤어지고 한두 달 정도는 괜한 눈치를 보며 학교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출신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 부모님들

사이에서 중학생 때 아무개와 사귀었던 아이와 같은 수식어가 여전히 남아있어 꼬리표가 된 점이 있습니다. 헤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시간이 지나도록 전 남자친구의 여자친구라는 수식어가 붙을까 걱정부터 하는 등 연애에 대한 기대보다는 걱정부터 하는 부정적인 태도로 변화되었습니다' 등이 언급되었다.

3) 연애에 대한 부적응적 태도

세 번째 영역은 '연애에 대한 부적응적 태도'로 1) 이성에 대한 편견 및 고정관념 형성, 2) 사랑에 관한 부정적 개념 습득이라는 2개의 범주가 확인되었다. 먼저, '이성에 대한 편견 및 고정관념 형성'은 청소년기 이성교제 경험 후 이성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고정관념이 형성되었다는 내용으로, '이성을 하나의 고정관념에서 보게 되었다', '이성에 대한 편견을 갖게 됨', '이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형성되었다', '남자에 대한 무서움이 생겼다. 선생님이나 교수님이 남자면 불편하다' 등이 응답이 포함되었다. 둘째, '사랑에 관한 부정적 개념 습득'은 청소년기 이성교제 경험으로 사랑에 관해 부정적인 태도와 개념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연애가 힘들다는 것을 알기에 이성을 만날 때 친구 이상의 관계로 발전하는 것이 꺼려짐', '사랑에도 기간이 있다는 것,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사랑이 타오르고 식을 수 있고 사랑은 대개의 경우 구속을 전제로 한다는 것, 그리고 영원할 것 같아도 한순간에 끝날 수 있음을 깨닫고 인간관계의 허무함을 이해하게 되었음' 등을 포함하였다.

4) 자기계발 저하

네 번째 영역은 '자기계발 저하'로 1) 학업 소홀 및 성취의 어려움, 2) 다양한 활동 경험 및 여가 생활 제한, 3) 금전과 시간 등 자원의 소모라는 3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첫째, '학업 소홀 및 성취의 어려움' 범주는 청소년기의 이성교제로 인해 학업에 소홀해지고 학업 성취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범주로, '여자친구랑 노느라 과제를 안 해갔다. 부정적인 영향은 거의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과제를 안 해가거나 친구에게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것들은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성교제에 너무 시간과 노력을 쏟다 보니 학업에 영향을 주었다', '자기결정권을 잃는 일이 반복됐다. 내가 공부하던 시간은 점점 교제에 시간이 들게 되고 늘어난 친구와 선후배에게까지 쪼개지며 시간을 보냈다. 또, 주변에 사람이 많으니 내가 진로 고민을 할 때 정보 없이 하는 말들이 늘어나 혼란을 빚어 실수한 적도 있었다' 등의 응답을 포함한다.

둘째, ‘다양한 활동 경험 및 여가 생활 제한’ 범주는 다양한 활동 경험이나 여가 생활을 영위하는 데 제한을 겪었다는 내용으로, ‘여가선용 측면에서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혼자 어떤 취미를 가져야 할지 친구를 만나는 것 외에 어떤 방식으로 여가를 보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여가선용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이성교제로 여가 시간을 주로 보내다 보니 그 이후 현재에도 이성교제를 안 하는 여가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내지 못하는 경향이 자주 일어난다’ 등이 확인되었다. 셋째, ‘금전과 시간 등 자원의 소모’는 청소년기 이성교제 경험으로 금전 및 시간 등의 자원을 소모했다는 범주로, ‘자신의 시간이 없이 연인에게 시간을 많이 할애하였다’, ‘스스로를 발전시킬 금전적, 시간적 자원의 부족’ 등이 언급되었다.

5) 무변화

다섯 번째 영역은 ‘무변화’로 청소년기 이성교제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없음을 의미한다. 총 14명이 부정적 영향이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없음. 뭐든 다 얻는 게 있었음. 사람에 대한 이해 자기 이해 모두 전적으로 도움 됨’,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은 마땅히 없다’ 등의 응답을 포함한다.

IV.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이성교제의 다양한 결과와 의미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청소년기에 이성교제를 경험한 적이 있는 성인들이 회고적으로 인식하는 청소년기 이성교제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에 대해 질문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초기 성인기에 해당하는 성인 11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수집된 질적 자료를 수정된 합의적 질적 연구(CQR-M)방법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청소년기 이성교제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총 5개 영역과 16개 범주가 도출되었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총 5개 영역, 13개 범주가 도출되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기 이성 교제 대한 긍정적인 영향으로 ‘자기 이해 향상’, ‘대인 관계 역량 향상’, ‘사랑과 연애에 대한 적응성 향상’, ‘의사소통 기술 역량 증진’, ‘심리적 안녕감 향상’의 영역이 도출되었고,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자기 감정적 소진’, ‘대인 관계 갈등’, ‘연애에 대한 부적응적 태도’, ‘자기계발 요인’ 그리고 ‘무변화’가 도출되었다. 긍정적인 영향의 5개의 영역 중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인 영역은 ‘대인 관계 역량 향상 (38.87%)’이었는데 동시에 부정적인 영향의 5개의 영역 중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인 영역 또한

‘대인 관계 갈등(39.92%)’이었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전체적 응답 빈도에 관하여 봤을 때 청소년기 이성 교제에 대한 긍정적 영향은 부정적 영향에 비해 더 많은 빈도가 나타났으며 범주 또한 긍정적 영향에서 보다 다채롭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에 관한 반응이 512개, 부정적인 영향에 관한 반응이 325개였다.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325개의 반응 중 14개는 청소년기에 경험한 이성교제가 부정적인 변화를 끼치지 않았다고 응답한 ‘무변화’ 반응을 포함한다. 이러한 결과는 이성교제를 경험한 당사자에게 있어 청소년기에 경험한 이성교제의 긍정적인 영향이 부정적인 영향에 비해 더 높은 빈도와 다양한 양상으로 지각됨을 내포한다. 이는 청소년기에 경험한 낭만적 관계는 정체성 형성, 또래들과의 원활한 관계, 성(sexuality)의 발달 등 청소년들의 건강하고 규범적인 발달을 도울 수 있다(Collins et al, 2009)는 선행연구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청소년기 이성교제는 삶의 주요한 영역으로 사회적 관계망 확장, 이성적 매력의 확인, 또래 관계 속에서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기여한다(정유진, 2017)는 선행연구와도 그 맥을 같이 한다.

둘째, 청소년기 이성교제의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 모두 ‘대인 관계 요인’의 영역 및 범주에서 모두 가장 높은 빈도를 기록했다. 대인 관계 요인이 가장 높은 빈도수를 기록했다는 것은 초기 연애 관계가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미래의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Lee & Lok, 2012)는 선행연구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특히, 청소년기 이성교제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 중 가장 높은 빈도를 기록한 것은 또래 관계의 확장 및 동성 친구에 대한 이해가 증진이 되었다는 반응(13.09%)이었다. 이는 이성교제 경험 특성에 의한 사회적 관계에서 이성교제 경험의 횟수가 증가할수록 부모가 자녀의 이성교제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 부모 혹은 또래와의 관계가 더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난(이명신, 2009)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다음으로, 타인에 대한 이해가 확장 및 대인 관계 효능감 증진이 되었다는 반응(10.94%)이 청소년기 이성교제로 인한 대인 관계 역량 향상의 긍정적 영향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빈도를 기록했는데, 이는 청소년기의 이성교제는 이성의 역할 및 이성과의 적응 방법을 경험하며, 사회화의 기능을 학습하게 된다(김제한, 1999)는 선행연구 결과와 그 맥을 같이 한다.

한편, 청소년기 이성교제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부모와의 갈등(15.43%)을 겪는다는 반응이 가장 높은 빈도를 기록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이성교제가 부모와의 갈등을 보다 고조시키고, 가족 관계가 이성교제 이후 비교적 원만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안월분 외, 2002; Dowdy, 1998)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 중 청소년기 이성교제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반응으로 부모에 대한 이해 확장 및 관계 변화(5.27%)의 범주가 확인된 점을 고려하면 청소년기의 이성교제 경험이 부모와의 갈등을 촉진

하는 등 부모와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 자녀와 자녀의 부모가 이성교제로 인해 인식하는 갈등 수준이 양자 모두 척도 상의 이론적 평균인 3점 이하로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는 선행연구(백옥현, 2011)와도 유사하다. 다음으로, 동성 친구와의 관계 갈등 및 소원(14.47%)의 반응 또한 청소년기 이성교제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빈도를 기록했다. 이것은 이성교제로 인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친구 관계가 변화될 수 있고, 이성관계가 동성친구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거나 만나는 횟수나 시간을 한정할 수 있다는 Zimmer-Gembeck(1999)의 연구를 지지한다. 이로써 청소년기 이성교제가 또래 관계에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지니는 이중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청소년기 이성교제는 자기개념에도 부정적 및 긍정적 영향을 모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기 이성교제의 경험은 개인의 인격적 성숙과 자아성찰 및 정체성 발달의 계기가 되며 심리적 지지 경험을 통해 자존감 증진과 자아성숙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유사하게 김제한(1999)은 청소년들이 이성교제를 하며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 상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려하게 되고 이성의 행위에 대처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인격이 형성에 기여함을 보고하였으며, 조승희(2012) 역시 청소년이 이성교제에서 성 행동을 통해 성적 자기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확인했다. 한편, 연애를 하는 사람들보다 연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좋지 않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 연애가 대학생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선행연구(Braithwaite, Delevi & Finchman, 2010)도 본 연구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반면, 청소년기 이성교제로 인해 개인이 성격의 부정적 변화나 자신감 하락 및 자존감 저하, 불안정한 정서 및 감정적 동요 경험 등 자기 감정적 소진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을 경험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이성 교제에서의 반복적인 갈등은 자기 정체성 및 관계에 대한 혼란을 야기한다는 선행연구(이재원, 2006; 장연주, 2007; 황경옥, 2001)와 그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이성 교제의 경험에서 가장 큰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하는 것은 이별인데, 청소년들이 이러한 상실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이영선 외, 2013), 우울감, 불안, 무기력 등의 정서적 불만족과 함께 심한 경우에는 신체 및 언어 폭력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장희숙, 조현각, 2001).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에 건강한 이성교제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자기조절 및 대인관계 기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이성교제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적 개입 및 심리적 치료가 요구됨을 함의한다.

넷째, 청소년기 이성교제가 적응적 연애 태도 및 관계에 대한 관점 확립, 미래의 연애에 관한 긍정적 참조 체제 형성에서 긍정적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이성에 대한 편견 및 고정관념

을 형성하거나 사랑에 관한 부정적 개념을 습득하는 것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성교제 경험이 없는 청소년과 비교해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학교에 잘 적응하는 경향이 있다(왕경아, 2016)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그뿐만 아니라, 청소년기 이성과의 만남을 통해 배우자 선택에 관한 방법을 배울 수 있음(김제한, 1999)을 확인한 선행연구도 미래의 연애에 관한 긍정적 참조 체제 형성이란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 한편, 연인과의 이별을 경험하면 부정적인 감정과 함께 자신 및 타인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관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갖게 되어 향후에 경험할 새로운 만남들을 저해(Monroe, Rohde, Seeley, & Lewinsohn, 1999)한다는 결과는 청소년기 이성교제가 이성애에 대한 편견 및 고정관념을 형성하거나 부정적 개념을 습득할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이를 종합했을 때, 청소년기에 수준 높은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은 성인 이행기의 중요한 발달 지표(Beyers, Seiffge-Krenke, 2010)가 될 수 있음을 내포한다.

다섯째, 청소년기 이성교제가 의사소통 기술 역량 증진에 기여하지만 동시에 학업 소홀 및 학업 수행의 어려움 등 자기계발 저하 요인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는 이성교제가 상호 관계의 기술을 향상해 사회인으로서 역할 수행을 돕는다(김원중, 1998)는 연구 결과 및 이성교제 중인 청소년이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워 시험공부를 하기 어려워하는 등 학업수행에 부정적 영향 경험함을 보고한 연구결과(이영선 외, 2013)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위 결과를 통해 나타난 본 연구의 학문 및 교육적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청소년기 이성교제 경험에 대해 경험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연구로, 탐색적 시도로서 의의를 갖는다. 성인기에 돌아본 청소년기의 이성교제 경험의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각각의 영역과 범주를 설정하여 체계화를 시도한 것에 의미가 있다. 청소년기의 낭만적 경험이 이후의 자아 개념과 정체성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낭만적인 경험이 사회화 과정에 고유한 것을 제공하는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질문으로 남아있는데(Collins, Welsh, & Furman, 2009),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이성교제를 경험한 초기 성인의 회고적 자료를 통해 과거 경험에 적절한 거리를 두고 성찰적 사고를 통해 활성화된 평가자료를 분석하여 보다 청소년기 이성교제의 영향에 대한 보다 정확한 평가가 도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연구 결과들을 종합했을 때, 청소년기의 이성교제를 금기시하거나 배제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전환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청소년기의 이성교제 경험과 관련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종합적으로 볼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추후 연구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청소년기 이성교제 경험이 '대인 관계 역량 향상' 요인에서 청소년 이성교제가 타인 이해 증진과 또래 관계의 확장 긍정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동성친구와의 관계 갈등 및 소원

등 대인 관계에서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적절한 교육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성교육과는 달리 별도의 시간을 확보해 정규 교육과정에서 이성교제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 있기에 이성교제 교육이 시행될 필요성이 있다(남영옥, 2016)는 연구결과도 있듯 이성교제를 포함한 자기표현 및 의사소통 기술향상을 위한 대인 관계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양혜원과 신혜섭(2006)은 부부폭력에서 남성이 주요 가해자인 경우와 달리, 청소년의 이성교제 폭력은 일방적인 가해나 일방적인 피해에 비해 쌍방 경험의 비율이 높다고 했다. 이성에 대한 본격적 관심은 청소년기에 시작되기에 이성과의 관계에서 바람직한 행동 양식을 청소년기에 습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래 관계가 주된 학교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이성교제에 관한 보다 명료한 인식을 하도록 돕고 건강한 이성교제 준비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마련과 상담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영선 외, 2013). 마찬가지로 청소년 이성교제 시 학업으로 인한 갈등을 고려해 부모를 대상으로 한 자녀의 이성교제 이해 및 개입 방법 등을 교육 내용으로 도입시키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성교제 경험 특성에 따른 사회적 관계에서 이성교제 경험의 횟수가 증가할수록 부모가 자녀의 이성교제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 부모, 또래와의 관계가 더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이명신, 2009) 선행연구도 이를 뒷받침한다. 자녀들은 부모의 이성교제에 관한 태도가 지지 및 자율지향적이기를 원했다고 보고(백옥현, 2011)되기도 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볼 때 청소년기 이성교제가 부모와 자녀 간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 양측 모두 전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청소년기 이성교제를 경험한 이후 청소년 및 성인기에 건강한 정서 표현 및 정서 조절에 초점을 둔 심리 교육이 요구된다는 것을 파악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청소년기 이성교제의 부정적 영향으로 이성에 대한 편견 및 고정관념 형성, 사랑에 관한 부정적 개념 습득, 성격의 부정적 변화나 자신감 하락 및 자존감 저하, 불안정한 정서 및 감정적 동요 경험은 자아존중감 하락 및 편견 형성 등이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부정적 영향들은 자기 감정적 소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의 심리 교육과 상담적 개입이 요구된다.

넷째, 기존의 연구는 개인의 이성교제 경험이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 그 변인을 설정하고 양적으로 검증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이는 청소년기 이성교제 경험을 한정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었다는 한계가 있었으며, 다양한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은 선행연구에서 계속 지적된 바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넓은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CQR-M 연구법을 따랐으며, 이 과정에서 연구자의 가설 설정, 이론적 배경 등의 간섭을 최소화 한 채로 폭넓은 인식을 물었기에, 청소년기 이성교제를 경험한 연구참여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았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본 연구결과는 실제 교육현장에서 개입할 근거로써의 활용성 뿐만 아니라, 후속 연구에서 이성교제로 인해 나타나는 긍정적 요인 또는 위험요인 등을 파악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교제 경험에 대해 남녀에 따른 견해 차이나, 연애 기간, 연애 시작 연령 등에 따른 건전한 이성교제 경험 차이 등을 알아 봄으로써 이성교제 경험을 세밀하게 접근해 보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이성교제 경험이 야기하는 심리적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변인설정, 또는 위험요인 예측 등의 연구를 수행할 시 연구문제를 도출하고 가설을 설정하는데 본 연구가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와 관련된 몇 가지 제한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의 대부분이 대학생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적용하는 데 있어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기에 이성교제를 경험하였으나 대학생이 되지 않은 사람들의 경험이 누락되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연구참여자의 성별도 여성 참여자의 비율이 70.9%로 남성 참여자가 더 포함되었다면 추출된 영역 혹은 하위범주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 연구결과를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있어서 연구참여자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수정된 합의적 질적 연구(CQR-M)을 통해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많은 경험을 수집할 수 있었지만 다른 질적 연구 방법과 같이 개인의 심층적인 경험을 탐색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추후 개인별 심층 면접을 통한 자료가 본 연구의 결과와 함께 고려된다면 청소년기 이성교제 경험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청소년기 이성교제의 영향을 성인이 회고적으로 응답한 자료에 기반하여 탐색하였는데, 실제 회고자료 분석방법을 통한 연구가 심각한 오차를 유발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더라도(노언경, 홍세희, 2010) 인간의 기억은 왜곡되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의 응답은 당시에 경험했던 것과 달리 과장되거나 축소하여 회고할 수 있다. 향후 이성교제를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면담자료나 설문조사 자료와 통합하여 이 연구결과를 활용한다면 청소년기 이성교제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고정자, 박은령 (2001). 청소년의 이성교제와 성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생활과학 연구소 생활과학연구논문집**, 9, 5-49.
- 곽금주 (2013). 현대 청소년의 이성교제 문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문제보고서**, 57(1), 10-17.
- 김단비, 주은선 (2020). 노인상담에 대한 노인들의 내적 지각 탐색: CQR-M 방식을 활용하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 369-384.
- 김동심, 정수인 (2017).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영향변인 규명 및 이성교제에 따른 차이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8(3), 29-56.
- 김원중 (1998). 중부 경남 지역 청소년의 이성 교제 실태 조사 연구. **21세기 경남도민의 삶의 질**, 3, 331-465.
- 김원중 (2004). 남녀공학·비공학 고등학생의 이성교제 실태 비교연구. **교육이론과 실천**, 13(3), 59-109.
- 김제한 (1999). 청소년의 이성교제 태도에 관한 연구. **學生生活研究**, 25, 31-56.
- 남순임, 김윤희 (2019). 전문상담교사의 소진과 극복경험에 관한 합의적 질적 연구. **상담학연구**, 20(5), 359-383.
- 남영옥 (2016). 초등학생의 이성교제에 대한 견해와 교육욕구 연구. **한국청소년상담학회지**, 1(1), 165-192.
- 노언경, 홍세희 (2010). 비연속시간 생존분석을 적용한 청소년의 최초 폭력 발생시점에 대한 영향요인 검증. **조사연구**, 11(3), 81-101.
- 매일경제 (2021.10.26). “두발·속옷·이성교제 규제는 인권 침해…청소년단체 인권위에 진정.”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10/1012842/>에서 2021년 10월 26일 인출.
- 민숙원, 이세웅, 윤혜준 (2021). 청소년기 대인 관계와 성인기의 사회적 신뢰 간 관계 연구. **중등교육연구**, 69(4), 465-492.
- 박연미 (2006). 청소년기의 “개념화”와 청소년의 성. **청소년문화포럼**, 13, 1-33.
- 백옥현 (2011). 이성교제에 대한 청소년 자녀와 부모 간의 지각의 차이와 갈등. **청소년학연구**, 18(12), 29-54.
- 서울신문 (2021.10.21). “감출수록 음지로 가는 청소년 성문제”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1021030002>에서 2021년 10월 21일 인출.
- 선영운 (2013). 초등학생들의 이성교제 경험과 그 의미. **초등상담연구**, 12(2), 199-218.
- 송리라 (2021). 초기 성인기 정신건강의 사회적 기원과 누적적 형성.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안월분, 이재구, 김영희 (2002). 청소년의 이성교제에 따른 사회심리적 특성 비교. **한국가정과 교육학회지**, 14(2), 53-66.
- 양혜원, 신혜섭 (2006). 남녀 고교생의 이성교제폭력 실태와 예측요인. **한국청소년연구**, 17(1), 33-59.
- 왕경아 (2016). **청소년의 이성교제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명신 (2009). **청소년의 이성교제 경험이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정책복지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선정, 김은영, 신효식 (2006). 고등학생의 성교육을 위한 기초 조사 연구. **한국 가정과교육 학회 학술대회**, 202-203.
- 이영선, 김은영, 강석영, 김래선, 유준호, 최영희, 윤민지 (2013). 청소년 이성교제 질적분석 결과 발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문제보고서**, 57(1), 18-71.
- 이은주 (2014). 여학생의 이성교제 경험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학교사회복지**, 29, 535-559.
- 이재원 (2006). **성인애착유형에 따른 자아정체감과 대인 관계의 관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창식, 김윤정 (2005). 청소년들의 성관계의향 수준과 예측변수에 관한 연구: 이성친구가 있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대상. **한국청소년연구**, 16(2), 345-367.
- 장연주 (2007). **성인애착이 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희숙, 조현각 (2001). 대학생 이성교제폭력의 실태와 위험요인들. **한국가족복지학**, 1(8), 179-204.
- 정유진 (2017). 청소년의 이성교제 여부 변화와 관련 요인.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8(2), 660-671.
- 장미수, 이지연, 이지연 (2013). 마음쓰기(minding)의 이해와 청소년 이성교제에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10(3), 367-388.
- 조승희 (2004). **청소년 이성교제 실태 조사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승희 (2012). **이성교제를 경험한 대학생의 성행동에 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한상철 (2000). 청소년기 이성관계의 특징과 발달 유용성. **청소년행동연구**, 5, 1-17.
- 황경옥 (2001). **대학생의 애착 유형과 자아정체감 및 대인 관계성향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황매향, 강지현, 하혜숙, 김영빈 (2021). 중학교 시기의 일상적 경험에 대한 합의적 질적 분석: 대학생 회상자료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8), 241-256.

- Beyers, W., & Seiffge-Krenke, I. (2010). Does identity precede intimacy? Testing Erikson's theory on romantic development in emerging adults of the 21st century.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25*(3), 387-415.
- Bouchey, H. A., & Furman, W. (2003). Dating and romantic experiences in adolescence. In G. R. Adams & M. D. Berzonsky (Eds.), *Blackwell handbook of adolescence* (pp. 313-329). Oxford: Blackwell Publishers.
- Braithwaite, S. R., Delevi, R., & Fincham, F. D. (2010). Romantic relationships and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college students. *Personal Relationships, 17*(1), 1-12.
- Collins, W. A., Welsh, D. P., & Furman, W. (2009). Adolescent romantic relationship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0*(1), 631-652.
- Dowdy, B. B., & Kliwer, W. (1998). Dating, parent-adolescent conflict, and behavioral autonom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7*, 473-492
- Duncan, C. (2005). Satisfaction with a romantic relationship, depression, support and conflict.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77*(4), 449-461.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7, New York, NY: Norton and Company.
- Hill, C. E., Knox, S., Thompson, B. J., Williams, E. N., Hess, S. A., & Ladany, N. (2005).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An updat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2), 196-205.
- Lee, T. Y., & Lok, D. P. (2012). Bonding as a positive youth development construct: A conceptual review. In D. T. L. Shek, R. C. F. Sun, & J. Merrick (Eds.), *Positive youth development: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 (pp.145-162). Nova Science Publishers.
- Manning, W. D., Longmore, M. A., Copp, J., & Giordano, P. C. (2014). The complexities of adolescent dating and sexual relationships: Fluidity, meaning(s), and implications for young adults' well-being.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144*, 53-69.
- Monroe, S. M., Rohde, P., Seeley, J. R., & Lewinsohn, P. M. (1999). Life events and depression in adolescence: Relationship loss as a prospective risk factor for first onset of major depressive disorder.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8*(4), 606-614.

- Roscoe, B., Diana, M. S., & Brooks, R. H. (1987). Early, middle, and late adolescents' views on dating and factors influencing partner selection. *Adolescence*, 22(85), 59.
- Spangler, P. T., Liu, J., & Hill, C. E. (2012).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for simple qualitative data: An introduction to CQR-M In C. E. Hill (Ed.),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A practical resource for investigating social science phenomena* (pp. 269-284).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Webster, L., & Mertova, P. (2007). *Using narrative inquiry as a research method: An introduction to using critical event narrative analysis in research on learning and teaching*, London, England: Routledge.
- Zimmer-Gembeck, M. J. (1999). Stability, change and individual differences in involvement with friends and romantic partners among adolescent femal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8(4), 419-438.

ABSTRACT

Exploring dating experiences during adolescence: The application of modified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hoi, Jiwoong* · Lee, Eun Sul** · Choi, Byeongseop***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xplore the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f dating in adolescence. To this end, this study collected data via an online survey from adult men and women in early adulthood (ages ranging from 19 to 28), who reported having had dating experiences during their adolescence. The responses, gathered from a total of 110 participants, were analyzed using the Modified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Method. As a result, five categories and seven domains emerged concerning the positive influences of dating in adolescence. These five categories included the following; 'improvement of self-understanding,' 'interpersonal factors,' 'factors related to love and romance,' 'improvement of communication skills,' and 'improvement in subjective well-being.' In terms of the negative influences of commitment on dating relationships in adolescence, five categories and 13 domains were identified. These five categories included the following; 'emotional exhaustion,' 'interpersonal factors,' 'romance factor,' 'lack of self-development,' and 'no negative changes.' Concerning the overall response frequency, a higher frequency was noted for the positive effect of romantic relationships in adolescence than the negative effect. Based on these conclusions, there is a clear need for educational and counseling interventions for adolescent romantic relationships. Finally, the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possible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also discussed.

Key Words: Adolescence, Dating, CQR-M

* Gimpo Foreign Language High School/Teacher, Incheon National University/Master, jiwoong_teacher@naver.com

** Incheon National University/Assistant Professor, eunsullee@inu.ac.kr

*** Incheon National University Counseling Center/Counselor, grace_ly@naver.com